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전 연 숙[†]

강 혜 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탈북여성 546명을 대상으로 전연숙(2010)이 개발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진로장벽척도'를 실시하였다. 탈북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 진로장벽 지각수준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의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수준은 20대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60대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북여성의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수준에서는 인민학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문학교졸, 고등중학교졸, 대졸 집단 순으로 진로장벽 지각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탈북여성의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수준은 사회배출 이전의 입국초기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2-3년 거주 집단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지각수준을 보이다가 2-3년 집단에서 낮아지고 다시 3-4년 집단에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M자 곡선의 형태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탈북여성, 진로장벽 지각 수준, 연령, 학력, 남한거주기간

[†] 교신저자 : 전연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연구센터, (330-70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Tel : 041-560-1130, E-mail : youn402@kut.ac.kr

최근 낮은 출산률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대체방안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1999년 47.0%, 2004년 49.8%, 2010년 6월 현재 50.7%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통계청, 2010).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취업의 연속성이 개선된 것은 아니며, 취업경력이 짧은 신규 진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과 직무에 있어서 성 분리현상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남춘호, 2001).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보살피는 이중부담을 감수해야하며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은 경력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진로장벽을 취업지원에서 다루는 것은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여성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 많은 장애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12월 말 1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전연숙, 2010). 이들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윤여상 등, 2005),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박정란, 2006), 월수입이 현저히 낮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부분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등 고용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이금순 등, 2003). 전연숙, 강혜영(2009)은 탈북여성은 정치·경제·사회체

제가 다른 이(異)문화권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들만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특성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고 있다(노경란, 전연숙, 2009; 박정란, 2006). 이들의 2009년 실업률은 13.7%로 일반국민 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송창용, 2009).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부적응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각하는 취업 장애요인에서 찾으려는 연구가 등장하였다(윤여상 등, 2005; 선한승 등, 2005).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지각하는 취업 장애요인으로 업무능력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승진에서의 불공정, 건강문제 등(윤여상 등 2005)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미래불안, 능력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 많음, 승진의 어려움 등(선한승 등, 2005)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현상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진로관련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탈북여성의 취업적응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주도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이미경, 2009),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취업장애요인 즉, 진로장벽의 지각수준이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특성을 알아야 남한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부적응 문제에 대한 진로상담 개입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장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논의들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남성보다 직업성취를 이루지 못하거나 낮은 성취만 이루게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Betz, 1994). 이러한 원인들 중 하나는 여성들은 진로발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장벽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첫째, 직장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다(Rider, 2000; Wood, 1994). 둘째, 자신의 진로개발을 배우자(남편)의 그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은 많은 남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자신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etz와 Fitzgerald, 1987). 셋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일하는 여성 특유의 욕구들이 사회의 저항으로 인하여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Patterson, 1996; Siltanen, 1994). 이와 같이 진로장벽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시작되었으나(Farmar, 1976; Zytowski, 1969), 특정한 진로이론과 관련해서 진행되기보다는 탈이론적 개념으로 독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공운정, 2005). 그런데 비교적 최근의 진로이론인 사회인지 진로이론(Lent, Brown과 Hackett, 1994; 2000)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선택 모델 안에서 직업적 흥미, 진로선택, 수행수준이 결정되어지는 진로발달과정의 맥락적 요인에 포함되어 진로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에서도 개인이 직업포부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만나게 됨으로 진로포부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장애를 지각함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에 이르는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

어져왔다. Swanson과 Woitke(1997)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들이나 조건들’로 정의하면서 내·외적장벽을 포함하였다. 국내에서는 손은령(2001)이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 막는 내적, 심리적 요인과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의 진로선택 및 진로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외적요인, 기타요인’으로 보고, 탈북여성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진로장벽이 여성들의 향후 진로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이성식, 2007).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전연숙, 강혜영, 2009), 일부 연구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Lee, 1994).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개인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수준에 따라 진로흥미,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그 장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Swanson, Daniels와 Tokar, 1996).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지각의 수준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어떤 진로장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진로선택과 진로결정과정도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무엇인지, 이들의 특성별로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수준이 어떠한 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다는 성차를 입증하고 있지만(Luzzo와 Hutcheson, 1996), 여성과 같이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그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진로장벽 지각의 양상과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손은령, 2001).

Spencer(1982)는 여성의 발달과제는 남성과 다른 독특한 양상의 발달을 한다며 여성을 남성의 발달순서인 초기전환기(17-28세), 30대 전환기(28-39세), 중년기 전환기(39-45세), 노년기 전환기(65세 이상)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초기전환기의 여성은 부모 등 사회적 지지를 덜 받아 자기정체감 발달이 더 어렵고, 30대 전환기에는 결혼 등으로 인해 가정과 직업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중년기 전환기에는 타인들(남편과 아이들)이 이룬 것을 가지고 자신이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정체감 형성과 인생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노년기 전환기의 여성은 자아 자율성이라는 발달목표를 성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같이 여성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연령과 같은 개인변인은 매우 영향력이 큰 요인이다(민무숙, 2006).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연령과 학력(김미영, 2005), 혼인상태, 실직기간(최영숙, 2004)

및 가계소득(최정원, 2005) 등에 따라 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수준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여성들의 진로장벽 지각에 개인변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진로장벽 지각수준과 개인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다는 결과(최영숙, 2004)와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최재경, 2004) 그리고 30대에서 가장 높은 진로장벽을 지각한다는 결과(성명숙, 2008) 등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있다(최정원, 2005; 김미영(2005). 이러한 결과는 각 연구 대상의 여성들이 진로발달과정에서 가사역할 중심과 노동시장 참여 중심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른 영향의 차이에서 오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 또는 실직여성의 학력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 하였으나(최영숙, 2004; 성명숙, 2008), 학력이 진로장벽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최정원, 2005; 김미영, 2005).

진로장벽 지각수준을 거주기간별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활근거지가 일정한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북한, 제3국, 남한으로의 국가를 달리하는 이주과정을 거쳐

정착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이주국가에서 정착 기간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착기간별 진로장벽 지각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상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로장벽 지각수준은 특정 집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탈북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한 여성과 동일한 상담 지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동일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문화와 언어를 달리하는 이(異)문화권에서 살아왔기에 각기 지각하는 요인과 수준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수준을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진로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특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적응도를 높이는 일과 관련성이 깊어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령, 학력 변인과 탈북여성의 특성상 남한사회에 이주한 이후 정착기간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입국이 증가한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특성을 알아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특성별로 취업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벽의 지각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수준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수준은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태국 등 제3국을 경유, 국내로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통일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탈북여성 194명, 하나원을 수료하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 352명 등 총 546명이다.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척도(Career Barriers Inventory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전연숙(2010)이 탈북 여성 1,662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장벽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요인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10개 문항)’, ‘가족 및 경제적 문제(7개 문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6개 문항)’, ‘언어 및 문화의 차이(7개 문항)’, ‘직업정보 및 이해 부족(4개 문항)’, ‘직업능력 부족(4개 문항)’, ‘학력 부족(4개 문항)’,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2개 문항)’이다.

진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방해받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높은

표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546)

	변인	N	%	합계
연령	20대	95	17.4	546 (100%)
	30대	204	37.4	
	40대	177	32.4	
	50대	52	9.5	
	60대 이상	18	3.3	
학력	인민학교졸업(이하)	36	6.6	546 (100%)
	고등중졸업	387	70.9	
	전문학교졸업	85	15.6	
	대학교졸업이상	38	7.0	
남한거주기간	하나원교육중	194	35.5	546 (100%)
	1년 미만	87	15.9	
	1-2년 미만	87	15.9	
	2-3년 미만	68	12.5	
	3-4년 미만	45	8.2	
	4-5년 미만	30	5.5	
	5년 이상	35	6.4	

주1. 하나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거주지 정착 이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통일부 소속의 교육기관.

주2. 학력은 북한에서의 학력을 의미함.

점수를 보일수록 진로장벽 지각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는 .95이었으며, 8개 요인 각각의 Cronbach의 α 계수는 .70~.90로 나타났다.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검사-재검사신뢰도 계수는 .74~.90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설문지 배부 및 수거 기간은 2010년 1월부

터 3월까지 총 3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 수거된 설문지의 총 수는 558부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문항 반응이 한 곳에 몰려있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총 54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하나원에서 교육중인 탈북여성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하나원을 수료하고 남한 사회에 정착중인 탈북여성은 경기도 소재 직업훈련학교, 연구자와 하나원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인연을 맺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

성들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

탈북여성들의 진로장벽 지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Windows SPSS 16.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수준

본 연구에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지각수준 전체 점수의 평균은 3.049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650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지각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학력부족’이 평균 3.361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이 평균 2.496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수준

탈북여성의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전체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165, p<.001$). 즉, 20대 집단의 진로장벽 지각점수의 평균이 2.929로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 집단의 평균이 3.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의 연령에 따라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지각수준을 살펴본 결과,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직업능력부족’, ‘학력부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001$). 즉, 모든 하위요인에서 5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집단, 30대집단, 20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요인에서는 50대 집단은 20대 집단과 30대 집단 보다, 60대 집단은 20대 집단 보다 평균값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직업능력부족’ 요인에서는 60대는 30대보다 평균값이 높았는데,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탈북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표 2. 진로장벽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진로장벽 전체	진로장벽 지각의 하위요인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	가족 및 경제적 문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	언어 및 문화의 차이	직업정보 및 이해부족	직업능력 부족	학력 부족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
Mean	3.049	2.496	2.925	3.303	3.339	3.184	3.216	3.361	3.249
SD	.650	.172	.142	.105	.121	.071	.077	.075	.046

표 4.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 검증(N=546)

하위요인	연령	N	Mean	SD	F	Scheffe
자신감 및 자기이해부족	20대	95	2.331	.655	5.673***	20대<50대, 60대 이상 30대<50대
	30대	204	2.426	.774		
	40대	177	2.527	.716		
	50대	52	2.815	.835		
	60대 이상	18	2.933	.785		
가족 및 경제적 문제	20대	95	2.777	.768	2.170	
	30대	204	2.866	.932		
	40대	177	2.990	.879		
	50대	52	3.168	.939		
	60대 이상	18	3.048	.95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20대	95	3.163	.648	3.254*	
	30대	204	3.246	.821		
	40대	177	3.345	.754		
	50대	52	3.519	.738		
	60대 이상	18	3.657	.711		
언어 및 문화의 차이	20대	95	3.257	.720	1.294	
	30대	204	3.284	.842		
	40대	177	3.395	.692		
	50대	52	3.486	.706		
	60대 이상	18	3.397	.807		
직업이해부족	20대	95	3.145	.804	1.555	
	30대	204	3.119	.815		
	40대	177	3.215	.748		
	50대	52	3.284	.797		
	60대 이상	18	3.528	.600		
직업능력부족	20대	95	3.108	.744	4.949***	30대<60대 이상
	30대	204	3.078	.914		
	40대	177	3.318	.801		
	50대	52	3.433	.852		
	60대 이상	18	3.722	.647		
학력부족	20대	95	3.216	.771	3.247*	
	30대	204	3.273	.866		
	40대	177	3.466	.793		
	50대	52	3.490	.844		
	60대 이상	18	3.722	.757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	20대	95	3.242	.931	1.088	
	30대	204	3.194	1.054		
	40대	177	3.232	1.024		
	50대	52	3.413	.969		
	60대 이상	18	3.611	.900		
진로장벽 전체	20대	95	2.929	.565	4.165***	
	30대	204	2.979	.703		
	40대	177	3.102	.594		
	50대	52	3.261	.670		
	60대 이상	18	3.352	.678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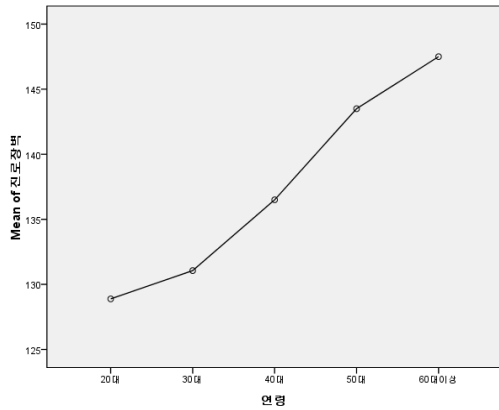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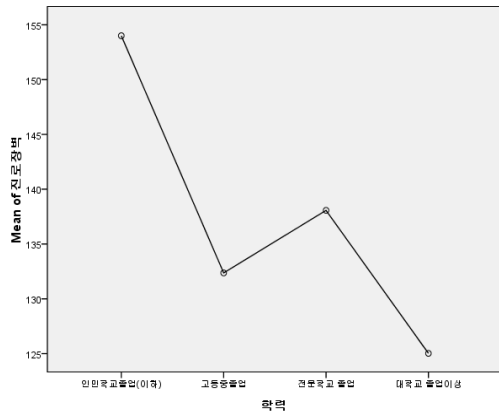


그림 2.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수준

탈북여성의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전체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438, p<.001$). 이를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 전체에서 인민학교졸업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집단과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탈북여성의 학력에 따라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집단간 지각수준을 살펴본 결과, ‘직업 이해 부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p<.001$). 이를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에서는 인민학교졸업 집단이 고등학교졸업, 전문학교졸업 및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았고, ‘가족 및 경제적 문제’에서는 인민학교졸업 집단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언어 및 문화의 차이’요인에서 인민학교졸업 집단이 전문학교 및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직업 능력부족’에서는 인민학교졸업 집단이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탈북여성의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은 진로장벽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인민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로장벽 전체에서는 전문학교졸업 집단, 고등학교졸업집단, 대학교졸업 집단 순으로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수준

탈북여성의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전체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486, p<.001$). 즉, 사회정착 이전의 하나원 교육 중인 집단의 진로장벽 지각점수의 평균이 2.805로 가장 낮았으며, 2-3년 미만 집단의 평균이 3.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 전체에서 사회정착 전인 하나원 교육생 집단이 남한거

표 5.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 검증 (N=546)

구분	학력	N	Mean	SD	F	Scheffe	
진로장벽 지각의 하위요인	자신감 및 자기이해부족	인민학교졸(이하)	36	3.144	.679	12.729***	①>②,③,④
		고등중 졸업	387	2.435	.722		
		전문학교 졸업	85	2.616	.754		
		대학교 졸업이상	38	2.232	.828		
	가족 및 경제적 문제	인민학교졸(이하)	36	3.528	.807	9.471***	①>②,④
		고등중 졸업	387	2.876	.862		
		전문학교 졸업	85	3.072	.874		
		대학교 졸업이상	38	2.534	1.03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인민학교졸(이하)	36	3.593	.598	4.448**	
		고등중 졸업	387	3.249	.769		
		전문학교 졸업	85	3.486	.744		
		대학교 졸업이상	38	3.167	.827		
	언어 및 문화의 차이	인민학교졸(이하)	36	3.698	.614	3.865**	①>③,④
		고등중 졸업	387	3.342	.755		
		전문학교 졸업	85	3.257	.753		
		대학교 졸업이상	38	3.147	.884		
직업이해부족	인민학교졸(이하)	36	3.465	.735	1.742		
	고등중 졸업	387	3.163	.811			
	전문학교 졸업	85	3.188	.689			
	대학교 졸업이상	38	3.112	.762			
직업능력부족	인민학교졸(이하)	36	3.549	.744	3.954**	① > ④	
	고등중 졸업	387	3.194	.870			
	전문학교 졸업	85	3.312	.717			
	대학교 졸업이상	38	2.914	.893			
학력부족	인민학교졸(이하)	36	3.653	.607	3.277**		
	고등중 졸업	387	3.298	.848			
	전문학교 졸업	85	3.515	.798			
	대학교 졸업이상	38	3.388	.777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	인민학교졸(이하)	36	3.875	.669	5.449***	①>②,③,④	
	고등중 졸업	387	3.187	1.001			
	전문학교 졸업	85	3.312	1.072			
	대학교 졸업이상	38	3.145	1.071			
진로장벽 전체	인민학교졸(이하)	36	3.500	.559	8.438***	①>②, ④	
	고등중 졸업	387	3.008	.637			
	전문학교 졸업	85	3.138	.612			
	대학교 졸업이상	38	2.842	.74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 ① 인민학교졸(이하), ② 고등중 졸업, ③ 전문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이상

표 6.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 검증 (N=546)

구 분	거주기간	N	Mean	SD	F	Scheffe	
진 로 장 벽 지 각 의 하 위 요 인	자신감 및 자기이해부족	하나원 교육 중	194	2.144	.614	15.061***	① < ②, ③, ④, ⑤, ⑥
		1년 미만	87	2.522	.672		
		1-2년 미만	87	2.853	.766		
		2-3년 미망	68	2.809	.731		
		3-4년 미만	45	2.547	.764		
		4-5년 미만	30	2.783	.860		
		5년 이상	35	2.577	.788		
	가족 및 경제적 문제	하나원 교육 중	194	2.497	.797	16.384***	① < ②, ③, ④, ⑤, ⑥
		1년 미만	87	2.947	.875		
		1-2년 미만	87	3.202	.843		
		2-3년 미망	68	3.395	.806		
		3-4년 미만	45	3.248	.828		
		4-5년 미만	30	3.338	.749		
		5년 이상	35	2.878	.91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하나원 교육 중	194	3.060	.784	7.023***	① < ③, ④, ⑥	
	1년 미만	87	3.274	.694			
	1-2년 미만	87	3.402	.734			
	2-3년 미망	68	3.623	.605			
	3-4년 미만	45	3.433	.771			
	4-5년 미만	30	3.589	.776			
	5년 이상	35	3.443	.812			
언어 및 문화의 차이	하나원 교육 중	194	3.202	.815	2.756**		
	1년 미만	87	3.417	.676			
	1-2년 미만	87	3.435	.657			
	2-3년 미망	68	3.460	.789			
	3-4년 미만	45	3.394	.661			
	4-5년 미만	30	3.590	.728			
	5년 이상	35	3.139	.876			
직업이해 부족	하나원 교육 중	194	3.161	.808	.782		
	1년 미만	87	3.224	.675			
	1-2년 미만	87	3.239	.713			
	2-3년 미망	68	3.213	.927			
	3-4년 미만	45	3.289	.824			
	4-5년 미만	30	3.058	.753			
	5년 이상	35	2.986	.781			

표 6.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 검증 (N=546) (계속)

구 분	거주기간	N	Mean	SD	F	Scheffe	
진 로 장 벽 지 각 의 하 위 요 인	직업능력 부족	하나원 교육 중	194	2.974	.829	5.935***	① < ③, ④
		1년 미만	87	3.330	.738		
		1-2년 미만	87	3.411	.785		
		2-3년 미만	68	3.515	.853		
		3-4년 미만	45	3.200	.877		
		4-5년 미만	30	3.433	.935		
		5년 이상	35	3.043	.906		
	학력부족	하나원 교육 중	194	3.223	.886	2.250*	
		1년 미만	87	3.356	.780		
		1-2년 미만	87	3.463	.754		
		2-3년 미만	68	3.518	.841		
		3-4년 미만	45	3.522	.768		
		4-5년 미만	30	3.542	.679		
		5년 이상	35	3.221	.844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	하나원 교육 중	194	3.139	1.093	1.652		
	1년 미만	87	3.184	.886			
	1-2년 미만	87	3.345	.922			
	2-3년 미만	68	3.382	1.055			
	3-4년 미만	45	3.444	.961			
	4-5년 미만	30	3.517	.886			
	5년 이상	35	3.043	1.060			
진로장벽 전체	하나원 교육 중	194	2.805	.627	9.486***	① < ③, ④	
	1년 미만	87	3.078	.572			
	1-2년 미만	87	3.240	.611			
	2-3년 미만	68	3.308	.645			
	3-4년 미만	45	3.170	.596			
	4-5년 미만	30	3.296	.630			
	5년 이상	35	2.992	.711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 ① 하나원 교육 중, ② 1년 미만, ③ 1-2년 미만, ④ 2-3년 미만, ⑤ 3-4년 미만, ⑥ 4-5년 미만, ⑦ 5년 이상

주기간 1-2년 미만 집단과 2-3년미만 집단보다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탈북여성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지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직업이해 부족’, ‘사회적 지지기반 약함’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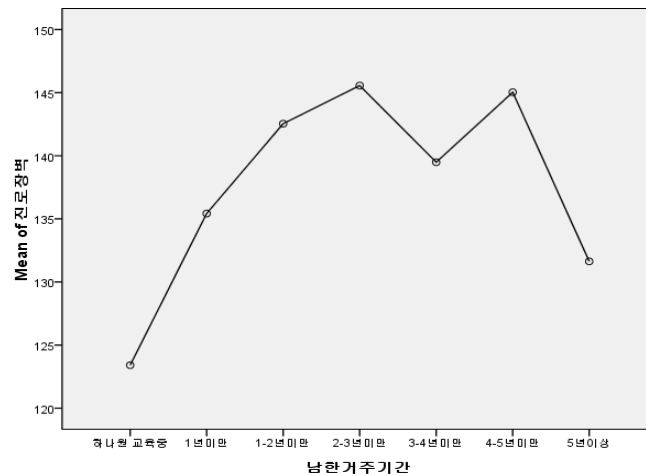


그림 3.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p < .001$). 이를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하위 요인별로는 ‘자신감 및 자기이해 부족’, ‘가족 및 경제적 문제’에서는 하나원 교육중 집단이 남한거주중인 모든 집단보다 진로장벽지각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고($p < .0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에서는 하나원 교육중 집단이 1-2년 미만, 3-4년 미만 및 4-5년 미만 집단보다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직업능력부족’에서는 하나원 교육중 집단이 1-2년 미만 및 3-4년 미만 집단보다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탈북여성은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아지다가 낮아지고, 다시 높아지는 반복적 현상을 보여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표 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로 진로장벽 지각수준을 분석하여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시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의 연령에 따라 진로장벽 전체의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20대 이하 집단이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지각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50대와 6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집단, 30대 집단, 20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탈북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은 국내 실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에 따라 지각한 진로장벽의 차이가 없다(김미영, 2005; 최정원, 2005),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진로장벽을 지각한다(최정원, 2005), 30대에 가장 높은 진로장벽을 지각한다(성명숙, 2008; 최영숙, 2004)는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민무숙(2006)은 국내 여성이 30대에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가장 높은 이유는 결혼과 출산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등 국내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여, 진로장벽 대처방안 접근에 있어서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전연숙, 강혜영, 200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탈북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감 및 자기이해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직업능력부족’, ‘학력부족’ 하위요인에서 진로장벽 지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는 우리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학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탈북여성은 진로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령이 낮은 탈북여성은 직업훈련 및 대학 진학 등을 위한 미래 준비가 가능할 수 있지만, 연령이 높은 탈북여성의 경우는 장기화된 경력단절을 극복해야 하는 장벽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가족 지원과 입국 추진 등의 다중역할에서 오는 장벽으로 인해 더 높은 진로장벽 지각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탈북여성의 북한 학력에 따라 진로장벽 전체의 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졸업 집단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집단, 전문학교졸업 집단, 인민학교 졸업 이하 집단 순으로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직업이해부족’ 외 모든 요인에서 학력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직업복귀 여성이나 진로단절 여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다는 최영숙(2004)과 성명숙(2008)과 일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탈북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성별 직종분리, 어머니와 노동자의 다중역할로 인한 이중적 부담 등의 취업 장벽은 저학력일수록 더욱 어렵다는 보고(양지윤,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대학졸업 집단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직업이해부족’, ‘학력부족’ 하위요인 이외의 모든 요인에서 인민학교 졸업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대학졸업의 학력은 남성이 훨씬 많은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있고(양지윤, 2008), 탈북여성 중에서도 대학졸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며(전연숙, 2010), 대학진학은 ‘집안내력’이 고려되거나 고등중학교에서 전교일 이등 성적이 되어야 가능할 정도(박정란, 2006)임을 감안할 때, 대학을 졸업한 탈북여성의 취업 자신감과 성취동기는 그 외 학력의 여성 집단보다 높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졸업 집단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가장 낮은 결과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다는 보고(안혜영, 2000; 손문경, 2002)도 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북한의 경우도 대학진학은 치열한 경쟁에 의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한과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탈북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집단이 전문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낮은 진로장벽 지각수준을 보여, 국내에서의 전문대 졸업 출신이 오히려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고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덜 지각한다는 연구(성명숙, 2008)와는 대치되는 결과이다. 탈북여성 중 전문학교 졸업집단은 고등중학교 졸업집단에 비해 취업과 취업이후의 보수, 지위, 승진기회, 고용안정 등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시 학력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여성이 진로장벽 전체의 지각수준이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 배출 이전 하나원 교육 중인 집단의 진로장벽 지각이 가장 낮았으며, 2-3년 미만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북여성의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진로장벽 하위 요인에 대한 지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자신감 및 자기이해부족’, ‘가족 및 경제적 문제’, ‘직업능력 부족’ 요인에서는 하나원 교육 중에 진로장벽 지각이 가장 낮았고, 그 외 요인에서는 5년 이상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언어 및 문화의 차이’, ‘학력부족’ 요인에서는 정착기간 5년까지 지속적으로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에서는 2-3년 집단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3-4년 집단에서 다시 낮아졌다가 4-5년 집단에서 다시 높아지는 M자 곡선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북여성은 남한거주기간 따른 진로장벽 지각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거주

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하나원 수료 후 3년 미만까지는 이직과 전직을 반복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혼전하는 실태를 보이다가, 3년 이상이 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보고(송창용, 2009)와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 70%이상이라는 보고(강혜영, 허은영, 전연숙, 2009), 1년 미만 재직기간을 보이는 경우가 93%나 된다는 보고(이화정, 2004)와 같이 남한 거주기간이 이들의 취업적응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탈북 여성에게 남한거주 2~3년 시기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재참여, 학교진학,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과 전직 등을 시도하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 거주기간 3~4년차에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낮아진 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보다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제2의 약진을 시도하는 시기로 다시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탈북여성에게 하나원 수료 후 3~4년이 되는 기간은 진로적응과 함께 경력개발의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진로장벽이 낮아지는 현상과 높아지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과도기로 보여진다. 이후 거주기간 5년 이상부터는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취업적응을 잘한다는 연구의 결과(김창권, 2007; 이기영, 2006)와 일치한다. 이 시기부터는 비교적 노동시장 및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진로장벽 지각수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입국초기 하나원 교육 중인 탈북여성은 남한의 현실적인 경험이 없어 오히려 진로장벽을 지각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남한 현실에 노출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는 탈북여성의 남한거주기간,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등 특성과 환경에 따라 정착지원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탈북 여성의 진로교육 및 상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지원서비스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설계부터 이들의 연령별, 학력별, 거주기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설계부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장벽척도(전연숙, 2010)를 활용하여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과 하위요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 또한 이러한 진로장벽 수준과 내용을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로 분석하여 향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비교집단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어느 한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연령, 학력, 남한거주기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예: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 수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한 사람들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개인성격별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때 이들에게 적절한 구체적인 적응 및 취업지원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 허은영 · 전연숙 (2009). 남한입국 후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통일부용역과제.
- 공윤정 (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 김미영 (2005). 여성실직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직업포부 수준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권 (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연구. 경상논총, 25(2), 15-39
- 남춘호 (2001). 성별직종격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누적불이익 모형 대 회전문 가설. 산업노동연구, 7(1), 115-156.
- 노경란·전연숙 (2009).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 대상 단기 진로개발교육 효과 연구: 학습자의 진로인식 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1), 245-277.
- 민무숙 (200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발전방안을 위한 전국대학심포지엄. 여성인력개발센터종합계획, 3-86.
- 박정란 (2006).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 의사결정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한승, 강일규, 김영운,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 (2005).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성명숙 (2008). 진로단절 여성의 진로신념이 진

- 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문경 (200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창용 (2009).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일부 용역과제.
- 안혜영 (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5(1), 191-234.
- 이기영 (2006).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18(1), 179-216
- 이미경 (2009). 북한이탈주민여성 1만명 시대 삶의 현장. 서울: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정 (2004).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실태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상, 이금순, 안혜영, 서윤환, 엄홍석 (2005). 2005년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통일부 용역과제.
- 전연숙 (2010).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 척도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연숙, 강혜영 (2009).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남한여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09-425.
- 최영숙 (2004). 진로장벽에 직면한 직업복귀 여성의 진로타협 유형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경 (2004).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원 (2005).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0.8.4검색). <http://kosis.kr/nsp/wsearch/totalSearch.jsp>
- 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개정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 Betz, N. E. (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psychology*(pp.1-41).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45, pp.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uzzo, D. A., & Hutcheson, K. G. (1996). Casual attributions and sex difference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occupational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Development*, 75, 124-130.
- Patterson, M. (1996). Women's employment patterns, pension coverage, and retirement planning. In C. Costello & B. Krimgold (Eds.), *The American Women 1996-97. Women and work* (pp. 148-165). New York: Norton.
- Rider, E. A. (2000). *Our voices: Psychology of women*. Pacific Grove, CA: Wadsworth.
- Siltanen, J. (1994). *Locating gender: Occupational segregation, wages, and domestic responsibility*. Greensboro: ERIC Counseling and Student Services Clearinghous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ERIC Report No. ED 377 373).
- Spencer, A. L. (1982). *Seasons*. New York: Paulist.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Measur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pp.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Wood, J. T. (1994). *Gendered lives: Communication, gender, and culture*. Belmont, CA: Wadsworth.
- Zytowski, D. G. (1969). Toward a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for wome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660-664.
- 1 차원고접수 : 2010. 8. 06.
심사통과접수 : 2010. 9. 17.
최종원고접수 : 2010. 9. 21.

The Analysis of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b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age, level of education, length of residence in South Korea

Yeon-suk Jeon

Hye-young Ka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his study, based on related theories and former studies on career barriers, inquired into the level of career barrier perceived b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classified into detail characteristics. 546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elected and participated in measuring level of career barrier. “The career Barrier Criterion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recently designed by Jeon Yeon Suk(2010) was used for measurement. For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career barrier perceived b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 ANOVA was carried out.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lde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Second, as for the level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 accordance with academic ability of th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with lower academic ability appeared to have higher career barriers. Third, the group under Hanawon education showed the lowest level of career barriers by length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and it was in M shaped curve increasing until 2-3 weeks of residence group then decreasing again after 3-4 years of residence group. The level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by length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displayed complicated aspects.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provides a basic data to prepare plans to effectively help th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o overcome career barriers in the future by clarifying the level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sed on study results, the study made suggestions for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studies.

Key words :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Degree of Perceived career Barrier, Age, Academic Ability, Length of Residence in South Korea